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 1독서 : 집회3, 2-6, 12-14

제 2독서 : 골로3, 12-21

복 음 : 루가2, 22-40

순정이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는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루가 2, 32).

강론

화복지문(禍福之門)

이수현 신부 / 중앙 천주교회

옛날 어느 가정에 자기 아들은 열 살 났으나, 열 아홉 난 며느리를 둔 부모님이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며느리가 자기 자식을 업신 여기지나 않을까?’ 또 ‘딴 마음이나 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늘 안심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서당에 갔다 돌아와보니 부모님들은 농터에 일하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는 부엌에서 점심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때 꼬마신랑인 그 아들이 “왜, 이제사 점심준비를 하느냐?” 며 점잖게 꾸중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른 아내가 “나이기도 어린 녀석이 어디서 꾸중이야!” 라고 소리치고는 두 손으로 남편을 번쩍 들어 호박넝쿨이 있는 지붕으로 집어던져 버렸다. 그리고 난 후 그 며느리는 겁이 났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시부모님이 아시는 날에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으로 쫓겨나야 할 것이고, 그러면 친정부모님을 어떻게 볼까?’ 하는 것 때문이었다.

이때 마침 시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신랑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여보! 큰 호박을 딸까, 작은 호박을 딸까?” 하였다. 이때 시부모는 당신들끼리, “여보! 우리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려. 애들의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뭘 걱정합니까?” 라고 말을 주고 받는 것이었다.

부엌에서 마음을 조이고 있던 아내는 어린 남편이 너무도 고맙고 남편의 넓은 마음에 감탄하여, 그 어린 남편을 잘 섬겼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일생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우리는 어느덧 '93년의 마지막 주일인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였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처럼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염원할 것이다.

가정의 행복은 가족 상호간에 이해와 용서로 감싸주는데 있음을 기억하자. 이해와 용서로 서로 감싸주는 가운데, 신뢰심과 헌신적 봉사의 사랑이 피어나, 우리가 염원하는 성가정처럼, 일생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제 2독서 내용 중,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함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주십시오.”라는 대목을 조용히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성가정을 이루도록 하자.

소리

결혼 가정

하느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서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시고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이루셨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탄 후 첫주일을 성가정 축일로 정하고 나자렛 성가정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 신심을 본받도록 했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특히 교황께서는 UN이 1994년을 ‘국제 가정의 해’로 정한 것과 발맞추어 오늘 성가정 축일부터 내년 성가정 축일(12월30일)까지를 ‘가정의 해’로 정하였다.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고선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우리의 가정을 작은 교회로 만들 것을 당부하신 것이다.

부모조차 함께 살기를 꺼려해 부부 둘이서 살거나 한 두명 자녀가 썰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정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안 어른으로 가풍을 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활의 지혜로 풀어갔던 가정의 모습은 동화 속의 얘기가 되고 만 듯한 느낌이다.

가족 관계가 생물학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소년범죄 가운데 70%가 실부모를 둔 결혼가정 자녀라는 통계가 나왔다.

부모가 있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옥박지르지만 한다면 어떤 꼴이 되겠는가. 불륜을 소재로 시청률 경쟁을 벌이고 있는 TV나 저질 비디오 앞에 앉아있기 마련이고 실부모를 둔 결혼가정이 되는 길을 밟는 것이다. □

순정이 산책





복음화는 가정 교회로부터

1.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1994년은 국제연합이 정한 「국제 가정의 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택된 주제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가정이 간직하고 있는 역량과 책임」입니다. 교황께서는 이에 발맞추어, 교회측으로서도 1993년 성가정축일(12월 26일)부터 1994년도 성가정축일(12월 30일)까지를 「가정의 해」로 정하셨고, 새해 평화의 날(1월 1일) 메시지 제목 역시 「인류의 평화는 가정으로부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부부생활과 가정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의 생명」, 「백주년」 등에서도 같은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1980년에 개최되었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도 가정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문헌이 나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1981년에 신자 가정의 역할에 관해 내놓으신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와, 1983년에 반포된 「가정권리헌장」이 그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편된 교황청의 기구 안에도 이 가정문제는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어, 교황청 가정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대에서 개인 및 사회의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추적해 나가면, 거의 예외없이 가정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음을 의식한 교회는, 일찍부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뿐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 국제연합에서도 현대사회가 드러내는 병리현상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건강한 인간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 1989년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1994년을 가정의 해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가정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회의 전통적 신앙에 입각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제연합 측과 보조를 함께하며 준비해온 것입니다.

2.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바치시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여,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도 더할 수 없이 끈끈하고 따뜻한 것이 우리 가정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는 부모님들 뿐 아니라, 형제들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만 당연하지조차 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답던 우리의 가정도 오늘에 와서는 날이 변화하는 세태 앞에서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태워주신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워 버리는 부모들이 늘어가고, 것처럼 생명을 가볍게 보는 풍조는 사회 전반에까지 확대되어 각종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젊은이들 사이에 늘으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드는 경향이 번져가고, 형제간의 우애가 얽어져 가며, 여러 가지 모양의 향락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을 소홀히 하게 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가족끼리의 대화가 줄어들고, 가정은 그 특유한 따뜻함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물결속에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잘 지켜가는 가정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자 가정에서, 하루의 일을 끝마친 부모와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함께 꿇어 저녁기도를 바치고 성서를 봉독할 때, 그것은 <가정교회>의 삶 속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중심적인 <성시간>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보낸 하루 전체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 봉헌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라면 부부간의 신의와 사랑이 더욱 증진될 것이며, 부모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은 틀림없이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와서 전인류의 관심을 집중시킬만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해」인 금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분야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반포하신 「가정공동체」를 모두가 정독하고 거

자동차의 모든것 월드카 인테리어

이 총 석(살레시오)
김 미 자(실비아)
우아동 신역로타리 해금장 옆
☎ 72-5173, 73-053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어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치향주 미용실

메이크업 전문
치 향 주(안젤라)
우체국 사거리 전주안과 2층
☎ 88-9405

축! 확장 이전 한성 건축사 사무소

건축설계, 감리, 건축상담
한 성 수(디오니시오)
전북은행 노송지점 뒤 세진빌딩 401호
☎ 87-9585~6 FAX 83-9166

기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모든 가정이

- 1) 더욱 인간다운 공동체의 형성에 이바지하고,
- 2) 생명을 보호하고 기르는 일에 봉사하며,
- 3)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 4) 교회의 사명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우리는 최근 몇년 동안 성서공부와 함께 복음선교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가정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신자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가족이 하나로 뭉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기도 시간에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간에 집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성서 안에서 그런 일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인의 가정생활은 그대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성서 운동과 선교를 위한 노력은 가정의 해에 와서 우리의 보급자리 자체를 작은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여 성가정을 이루면, 그것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도 힘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이루셨던 성가정은 언제나 우리 신앙인 가정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처럼(요한 2,3 참조), 가정 생활에 따르는 우리의 어려움을 먼저 알아채시고 당신 아드님께 부탁드려 주실 것입니다. 성가정에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아울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모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합시다.

천주교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교구 소식

- 1. 이병호 주교님 미사 일정 : 12월26일(성가정 축일)-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1월1일(평화의 날)-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1월2일(주의 공현 대축일)-오전10시30분 전동 성당.
 - 2. 교구청 증무식 : 12월31일(금) 오전12시 가톨릭센터.
 - 3. 성모의 기사회 : 1월1일(토) 오전10시 효자동 성당.
 - 4.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12월31일(금) 자정미사 후 전동 성당.
 - 5. 전주 소년구리아 연차 총친목회 : 12월27일(일) 오전11시 가톨릭센터 3층.
- ※ 축! 영명 : 27일(성요한 사도 복음사가)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종복, 이덕근, 김선태, 김희태, 권완성 신부님.

- **성소모임** 성바로밭수도회 : 1월2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1월2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0681)33-2578. 성모승천봉헌자수녀회 : 1월2일 오후2시 광주 본원(062)371-017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과대 광고

상품 판매시 과대 광고선전으로 소비자를 현혹, 과소비를 일으키고 비싼 광고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상품 선택시 스스로 판단하여 구입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요심이 (1061) 김병호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며 몇가지 물어보았어요

왜 구유에 태어났지요? 과소비를 안키 위하여..

이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사람들이올바로 사는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태어나서 맨 먼저 하신일은? 별거없고 태어났으니까 웃을 입었지

사무장 급히 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세계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각 1통
- 연락처 : 군산시 경장동 463-9 ☎(0654) 446-9197

여사무원 모집

1. 응시자격 : 영세한지 3년 이상의 고졸자, 무기, 타자 유자격, 컴퓨터 경험자 우대 2. 제출서류 : ①세례증명서 ②이력서 ③호적등본 ④자격증사본 ⑤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1통 3. 제출기한 : 94. 1. 2까지 ☎242-1140 천주교 호성동 교회

무궁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 샴이랑 : 온몸, 샴푸, 린스 겸용
 - 천연샴 : 부엌용(아기샴, 맑은샴) 전 경 자(베로니카) ☎ 86-2050
- ☎ 012-682-6543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문구, X.마스추리 전주 도매센터 남문노트사

원수관(아고보)
심경이(마리아)
다가동 우체국 앞
☎ (0652) 83-3352
FAX 83-7721

축! 개업

키친아트 전주특약점

혼수, 주방용품, 도자기 공장도가 판매, 각종 선물 담례품 상담
변희철(오아킴) · 한미영(글리라)
효자동 신광불림장 앞
☎ 224-8489

'94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병철(베드로)
박경애(안젤라)

호남(제일예식장위) 252-7313
새호남(전주역앞) 253-1411
효자(삼천쌍용APT앞) 221-8331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 진 랠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 동 주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1. 미사 시간 안내: 송년미사-31일 밤 10시 평화의 날(의무 축일) -1일 전 10시, 후 7시.
2. 사목위원 피정: 1일 전 10시~4시(법석구 신부님 특별 강론)
3. L.M 연차 총친목회: 오늘, 후 7시.
4. 사랑의 성금: 47만원. 누계-103만원.
5. 모임: ①제대회(28일) ②빈첸시오회(30일 전 10시30분)
6. 알릴: 28일 어머니미사 없음(새벽미사)
7. 금주 청소: 기린봉 1,2반.
차주 청소: 기린봉3, 중노13반.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 길 평

1. 축!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27일(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식 및 축하연: 26일(공식미사 후)
2. 수녀님 피정: 28일 7시.
3. 송년 미사: 31일 저녁 7시.
4.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미사: 1월1일 오전 10:30, 오후 4시, 7시.
5. 회합: ①사목회-1월2일 저녁미사 후
②대건회-1월9일 공식미사 후(연기)
6. 불우이웃돕기: 성금 누계 650,000원
금주 전례: 해설-허정식, 독서-박상기 부부
봉헌-나경성 가족.
차주 전례: 해설-오교성, 독서-황길평 부부
봉헌-김홍현 가족.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 불 섭
수녀원 86-6653 사목회장 양 주 태

-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교구장 사목교서 "복음화는 가장 교회로부터"-가정의 해.
◎ 축! 환영: 새롭게 태어난신 형제 자매님들.
1. 모임: ①성모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 요셉회-다음주일
 2. 올해 교무금 완납하시고 내년도 교무금 신입바랍니다.
 3.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1일 오전 10시 미사.
 4. 본당 발전을 위한 2차 헌금: 오늘.
 5. 아기 예수님과 삼왕 가정 방문: 27일~30일.
 6. 감사: 성탄절 행사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7. 차주 전례: 해설-이옥동, 독서-①남원준 ②김금자
봉헌-김원철 씨 부부.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 중 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 병 부

-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축일!
1. 반장회: 12월26일(오늘)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1월2일(다음 주일) 오후 2시.
 3. 사목회: 1월4일(화) 저녁 8시30분.
 4. 자모회: 1월5일(수) 오전 10시30분.
 5. 성탄 준비에 수고하신 사목회장님, 청년회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한해 동안 모든 신자분들의 사랑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1. 오늘 공식미사 후: 요셉회, 사목회(꼭 참여바랍니다)
 2. 성가대 총회: 12월28일(화) 12시.
 3. 송년미사: 12월31일(금) 밤 10시30분.
 4. 94년 1월1일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미사: 오전 10시.
 5. 다음주 공식미사 후: 꾸리아.
 6. 청소 봉사: 3구역 전체.

*** 전동** 주임신부 81-0098 보좌신부 82-7245 주임신부 김 불 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성 만
FA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 병 행

- ◎ 축! 예수 성탄(성가정 축일)
1. 금주: ①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2. 송년미사: 31일(금) 밤 10시.
 3.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미사 안내 (1월1일) 전 5:30, 10:30, 후 7시-미사 의무축일입니다.
 4. 차주: ①추의 공현 대축일(공식미사 주교님 집전) ②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③제수 글라라 형제회(후 1시30분) ④요셉회(후 6시)
 5. 성탄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 축하해 주십시오. 본당 관리장 하현철(요한) 최점례(세실리아) 금일 공식미사중 혼인.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장 삼 근

- ◎ 평화의 날: 1월1일 의무 축일미사 주일과 같습니다.
1. 송년의 밤: 31일 밤 10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참회 예절.
 2. L.M 연차 총친목회: 29일 저녁 7시 Pr별로 출연 준비.
 3. 경노잔치(합동 병자성사): 28일 11시 성모회와 함께.
 4. 사목회와 제단청장 송년회: 30일 저녁 8시 부용집.
 5. M.E 가족 송년 나눔: 27일 저녁 7시 회비 부부당 만원.
 6. 예비자 인도 기간: 1월9일까지, 봉헌예절-1월2일 미사 때.
 7. 회의: Cu-다음주일 후 2시30분, 한빛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사목회장 한 병 갑

- ◎ 우리 하느님이 땅에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도다.
1. 구역장 월례회, 총회: 공식미사 후.
 2. 레지오 연총 친목회: 오늘 오후 2시.
 3. 사목회: 다음주일 오후 8시30분.
 4. 꾸리아: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송구영신 미사: 31일(밤 11시)-외곽 교우 부부 초청의 밤.
 6.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의무 대축일미사: 1월1일 새벽미사, 공식미사 및 신년 하례식(공식미사 후) 금주 청소: 평화, 차주 청소: 삼정. 금주 전례: 김경숙, 정준성, 독서·봉헌-송민숙, 이광석, 차주 전례: 장병순, 정준성, 독서·봉헌-최숙자, 김기성.

*** 효자동** 본당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장 삼 호
FAX 223-3821 사목회장 이 동 섭

- ◎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1. 모임 안내(오늘 본당을 위한 2차 헌금))
 2. 레지오 연총 친목회: 오늘 오후 2시부터(성당)
 3. 꾸리아: 29일(수) 오전 10시.
 4. 송년미사: 12월31일(금) 밤 10시(한해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조용한 고백의 시간이 되십시오)(11시 미사는 없습니다)
 5. 성모기사회: 1월1일 오전 10시30분.
 6. 안나 요셉회: 1월2일 공식미사 후(교육관)
※축! 영명: 오늘 공식미사 후 본당신부님 영명 축하축식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관공성사 못보신 분은 매 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미사 안내: 금주-파티마의 모후, 티업오신 어머니.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21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 ◎ 축! 영세: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형제, 자매님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모임 안내: ①사목회-저녁미사 후 ②요셉회-공식미사 후 ③반회장 준비 모임-29일(수) 오전 10시. 2. 송년 감사미사: 31일(금) 저녁 8시. 3.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1월1일(토) 미사시간-오전 9시, 10시30분, 오후 4시, 저녁 7시. 차주 모임: 꾸리아, 신축 헌금 봉헌액: 2,840,000원. 금주 전례: 해설-이인숙, 독서①이세규 ②김지영. 봉헌 안내-김홍원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종표, 독서①이삼준 ②이종숙. 봉헌 안내-박용규 부부.